



개별적 자아는 허상이다(2부)

| 거위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울산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거위님은, 진리란 무엇인가 궁금해 하며 지내오던 중 마하라지의 책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연이어 월인님의 책을 인연으로 깨어있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어진 오인회 화상 강의들을 통해 점차로 발생하는 안팎의 변화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집부(이하 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 때문에 감정도 생기는 그런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특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런 믿음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타인과의 대립과 갈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

고 있어서 어떤 말썽이 있었다, 와 같은 경우가 있었나요?

거위(이하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믿음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이 허구이듯 저 사람의 믿음도 허구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강하게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부딪쳤어요. 제 믿음을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편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이 깨어있기 강좌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주역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해진 것이 있나요?

거 그 부분은 되게 미묘해요. 저는 커다란 믿음 외에 미묘한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관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책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환자를 보는 낮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이 책을 쳐놓고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그런데 환자가 예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을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 빠져 들었는데 환자가 왔다고 들어오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거든요. 저는 이것도 신념이라고 봐요. 제가 그것에 무게 중심을 둔 거죠. 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진 거죠.

이제는 미묘하지만 이런 것들도 캐치가 돼요. 예전엔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빠하며 넘어갔는데 지금은 캐치가 돼서 바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묶이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편 정리하자면 ‘내가 진료실에서 재미있는 책을 보고 있다.’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이것이 현상적이고 일시적이란 것까지 파악된 것이군요. 그래서 기분 나쁨이 잠깐 일어



났다 사라졌고요.

거 말하자면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는 느낌은 이런 표현이 더 가까워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몰입과 방향에 다른 패턴이 치고 들어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불협화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서 감지와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 구별이 되지 않나요?

편 독자들을 위해 좀 설명해주신다면?

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상황에서 결이 맞지 않는 그 찰나처럼 미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느낌이고, 감지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말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감정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유들, 구구절절한 변명들, ‘내가 이래서 기분 나빠졌어, 저 환자 때문이야’라는 것이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은 ‘환자’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지요.

편 누구의 책임이나 잘못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그냥 상황에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군요.

거 네,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을 말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깨어있기 심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함양에 갔을 때, 차를 타고 막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연못 옆에 웃으면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표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가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안 해요. 계속 들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도 빼먹기 싫었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리 즐겁냐고. 그냥 웃음이 나요. 말씀하시는 것이 통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이 바닥에서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편 나와 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 나와 대상은 그냥 분별일 뿐이에요. 사실 나와 대상은 둘이 아니죠. 통으로 전체로써 하나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냥 자연 현상과 똑같아요.

편 자연 현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서 화학반응을 보이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따로 있고 대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실상 일어나는 것은 통으로 하나예요. 하나의 현상에서 좌뇌적인 생각으로는 나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상의 세계에서는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편 아까 진료시간에 책을 보던 중에 환자가 들어오면 언짢은 감정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결국은 나의 분별이 작용해서 ‘나의 의



사고 환자가 왔다' 이런 분별을 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거 아뇨, 의사, 환자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이 맞지 않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기분 상함이 살짝 느껴진다는 거죠.
편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위 님은 의사고,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환자가 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분별의 기초가 아닌가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릎이 아파서 왔다 하면 이것저것 물어봐서 분별해내는 것이 직업이니까 분별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의 분별 아닌가요?
거 분별이죠.
편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니고 분별인가요?
거 제가 실제 어느 레벨에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 사실이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봐요. 제가 동일시를 어느 레벨에 하고 있느냐, 어느 레벨에 제가 의도적으로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결정되는 거죠.
편 그 말씀은 동일시를 어딘가에 많이 할수록 사실에 가까워진다는 건가요?
거 동일시가 커지면 현실감이 굉장히 커지죠.
편 결국, 내가 의사다, 다른 환자가 왔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분별이라는 건가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별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점점 분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편 환자가 없으면 의사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니까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라는 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사실 의사, 환자뿐만 아니라, 병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 허구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병이란 물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암 같은 것은 확연히 보이잖아요. 암 덩어리가요. 그것을 허구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요. 그런데 정신병을 예로 들어 보면 정신 분열병이나 우울증 같은 것도 다 허구라고 보는 거죠. 세계정신과학회에서는 병의 진단 기준들을 매년 바꿔요. 업데이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신분열병이었던 환자가 올해는 정신분열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 자체가 허구예요. 편 하지만 큰 틀은 안 변하지 않나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크게 바서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에서 그냥 범주를 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신분열증,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상’으로요.

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네요. 시험 볼 때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 네. 결국 세계가 돌아가려면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라는 것이 전부 예고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편 세계가 돌아가는 것과 정신병 경계를 정하는 것과의 보편적인 관계는 뭘까요?

거 범주가 정해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범주가 정해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편 정신병 진단을 내리고 ‘당신은 정신분열증 환자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수용소에 가두기 위해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거 네,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려면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음모이론처럼 의사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의사들은 학문적인 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학회에선 계속 싸워요. ‘내 기준이 맞네, 당신 기준이 맞네’라고 해가면서요.

편 결국 크게 봐서 그것도 하나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다 분별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 다 분별이죠. 모든 것이 분별일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 분별로 인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과잉행동 진단을 내리면 그것은 일종의 선고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도 해마다 바뀔 뿐더러 사실 그 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엔 아니었는데 올해 검사해보면 그렇다고 진단을 받는 거죠. 점점 많은 숫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수다스럽고 활발한 애인데 ‘너는 과잉행동이야’라고 딱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 작용해요. 그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 아이를 과잉행동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 아이와 사람들은 그 개념에 속박되죠. 물론 애가 굉장히 강인한 에고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병원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자주 안 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편 물리적으로 관찰되는 암 덩어리조차 허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풍 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그것도 스펙트럼 중의 하나인데 접근할 때 범주화를 시켜버리면 그것을 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현대의학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내과적이거나 외과적인 경우에는요.

편 그래서 암이 오진율이 많은 건가요? 잘은 모르지만 암이란 것이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 있는데 결국엔 수많은 종양 중에 어떤 종류만 암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거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편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오진이 나고요? 암이 오진율이 많은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임의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거 오진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암 덩어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의사들이 특히 내과 의사들이 학회에서 매년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폐암을 찾아내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환경에선 CT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CT를 어느 간격으로 찍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지요. 정기검진을 6개월에 한 번 할 것이냐, 1년에 한 번 할 것이냐, 이런 것도요. 물론 한 달에 한번 찍히면 한 달 이내에 발견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빨리 발견은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방사능을 사용할 뿐더러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 환자가 암 판정을 받으면 억울하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6개월 전에 검사를 했을 땐 깨끗하다고 나왔는데 6개월 후에 3기, 4기가 나오면 억울한 거죠. 암이 언제 생기는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는 천차



만별이라 그 사람한테는 2, 3개월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이 맞았던 거죠. 하지만 틀을 마련할 때는 모든 개인의 틀에 맞출 수가 없으니 평균적인 수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암이 발견됐을 때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 개인적으로 맘에 안 들어요. 암을 적이라고 규정짓고 접근하거든요. 없애고, 잘라내고, 방사선 치료 하고요. 항암제도 하나의 독이거든요. 그런데 암을 없애기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편 그러면 적이 아니라 친구라 생각하고 치료해야 하나요?

거 비유하자면 그렇죠. 저는 치료라는 것은 때는 것보단 달래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편 그런 식으로 치료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거 그것이 싫어서 그런 과를 선택 안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선택했어요. 마음도 편하고요. 제가 뭘 잘라내는 것도 없고요. 다 고쳐주고 다시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편 그러면 깨어있기 수업이나 오인회 모임에 참가하신 후에 일상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거 실상이 어떤 것이라는 게 좀 더 확연해지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일상에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뭔가를 한다는 그 느낌도 다 허구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함미 일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편 이 공부를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거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이 돼

요. 가족은 저의 가장 예민한 곳, 나조차도 잘 눈치 채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편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이 있나요?

거 저는 굉장히 순종적인 남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제가 책을 한 권 번역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번역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해왔어요. 약간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파악해요. 저도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의식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피곤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고마워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줌으로써 제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편 아내가 지적했을 때 언짢은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거 요즘은 5초에서 10초 정도 지속돼요.

편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거 표현을 하자면 분무기로 물을 최악 뿌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감정 자체가 최악 퍼졌다가 최악 사라져요.

편 왜 그렇게 되죠?

거 감정은 에너지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편 에너지적인 흐름이라 해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거 제가 거기에 동일시를 한다면 강화되죠.

편 결국 동일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 하나의 분별작용 이라는 말씀인가요? 감지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거 그렇죠.
- 편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별작용이 기초가 되어있나요?
- 거 예를 들어 거기에는 항상 판단에 준거하는 틀이 있어야 해요. ‘나’라는 것을 세워야 하고 상대방을 세워야죠. 그 둘을 서로 떨어뜨려 봐야만 감정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죠. 항상 내 입장을 세우면 감정이 일어나요.
- 편 나와 상대방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위 님과 아내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계속 실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 거 아니죠. 내가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내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만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 편 그렇다면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이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 거 착각이죠. 머릿속에 떠오를 때만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저를 세울 때에만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 편 그렇게 봤을 때 현재에 자신에게 부족하다거나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나요?
- 거 지금은 마음속에 항상 붙잡혀 있던 의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 ‘사람’이 없거든요. 그 앎의 주체는 없는데 그냥 앎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앎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잖아

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때에만 얇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씩 없애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모르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해요. 편 깨어있거나 오인회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체득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거 오히려 계획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빛부터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계획 또한 믿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신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생기고,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긴 해요. '이 빛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처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저 지금 일어난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봐요.

편 이외의 다른 계획은 혹시 없나요?

거 앞으로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교감을 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큰 계획들이 없어졌어요.

편 예전에 갖고 계셨던 큰 계획은 뭐가 있었나요?

거 몇 백억을 벌고 싶다, 내 병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등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을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요.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삶이,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들이 궁금해요.

편 오인회 모임이나 깨어있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자신이 공부한 과정 속에서 체득된 노하우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끌려오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딱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편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요?

거 30년 정도 걸렸네요. 진지한 마음으로 추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편 수고하셨습니다.

거 감사합니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